

대중국 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한 현지 실태 파악

- 오영석 선임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센터)

1. 출장 개요

개요

- 출장자 : 오 영석 선임연구위원
- 출장지역 : 중국 북경
- 출장기간 : 2011년 8월 3일(수)-6일(토) (3박 4일)
- 출장목적 : 중국 기관 및 기업체 방문을 통해 급변하는 중국 경제 및 산업환경을 파악함으로써, 한중간 국제분업 방향의 설정과 우리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임.

일정 및 방문기관

- 8월 3일 : 인천공항 → 북경공항 도착
중국사회과학원 방문(여철 주임)

- 8월 4일 : 중국거시경제연구원 방문(Wang Yueping 부소장, Jiang Chang Yun 주임 등)
중국자동차공업협회 방문(무역협조부 허해동 주임, 여문봉, 국제합작부 상호연)
- 8월 5일 : 중국석유·화학공업협회 방문(정보시장부 조지평 주임, 왕자민 부주임, 국제합작부 류연 경리)
포스리 북경사무소 정철호 소장 면담
중국반도체산업협회 방문(서소전 집행부이사장, 국제합작부 여철 주임)
- 8월 6일 : 북경공항 → 인천공항 도착

2. 기관·기업별 방문 내용

(1)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

□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경제발전 목표

-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여 ① 투자·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확대를 모색하고, ②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며, ③ 기술혁신과 새로운 제도를 창조할 예정임.
- 우선, 다음과 같이 산업구조조정의 최적화를 모색할 예정임.
 - 1차-2차-3차 산업 간 조정과 균형발전
 - 공업중심의 발전전략에서 기술발전과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에 초점
 - 가공산업위주에서 핵심기술의 육성을 강조

- 수출구조를 저부가가치 제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
- 그러나, 이러한 산업구조조정 속도는 거시경제적 성장속도와의 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.
- 중국경제의 발전방향
- 중국은 투자와 수출위주의 성장패턴에서 내수주도형 성장패턴으로 전환할 예정인데, 이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인식함.
 - 중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투자와 수출에도 역점을 두어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함.
 - 중국은 과거에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수출주도형 성장을 해 왔으나, 이제는 이러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와 있음을 인식함.
 - 그러나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을 내수주도형 성장패턴으로 전환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함.
 - 민간에서는 여전히 투자와 수출주도형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, 정부에서는 수출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임.
 - 향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흑자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: 이는 중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야기할 정도로 단기간에 내수주도형 성장패턴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함.

□ 7대 전략적 신흥산업

- 중국은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%인데 2015년에는 15%로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.

- 중국은 제조능력이 우수하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.
- 그러나, 목표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핵심기술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함.
- 즉, 중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한 성장패턴으로부터 자체기술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.
 - 생물, 의약 등의 분야는 중국의 기초과학이 우수하므로 발전가능성과 수출산업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함.
 - 그러나, 자동차를 포함한 장비제조업은 경쟁력이 취약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가공조립하는 패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.

□ 장치산업의 구조조정

- 중국의 장치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고, 그 방향은 설비의 대형을 통한 규모의 경제확보와 경쟁력 강화임.
 - 예컨대, 석유화학산업은 설비의 증설보다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, 철강은 신증설투자가 지속되면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상태에 있음.
- 장치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, 중앙정부가 지방에 하달하는 성격이 있으나 지방정부도 자율성이 있으므로 양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.

- 중앙정부의 입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된 설비만큼 신증설을 허용해준다는 입장인데 반해, 지방정부의 입장은 조세수입의 이해상 이러한 중앙정부의 입장과 상충되는 경향이 있음.

□ 한중 산업간 기술격차

- 중국 제조업의 기술수준은 대체로 선진국과 10-20년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.
- 자동차, 조선을 포함한 장비제조업의 경우 기술축적과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한중 간의 기술격차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평가함.
- 장비제조업의 경우 중국의 경쟁력이 고평가되어 있는데, 이는 중국에 있는 외자기업과 토착기업을 구분해서 보지 않기 때문임.
- 그러나, 의약, 생물 분야 등 첨단기술산업은 중국의 기초과학기술이 우월하므로 한중간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전망함.
- 소프트웨어 분야도 현재는 중국의 경쟁력이 낮지만 잠재성이 풍부한 시장인 것으로 평가함.

□ 외국인 투자정책

- 중국은 최근 “외국인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, 혜택이 없어진 것이다”라는 입장에 있음.
- 즉,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정책이 변한 것은 없고, 다만 외국인 투자와 국내투자간 불균형 지원을 균형지원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임.
- 향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대형투자, 기술집약형 투자의 유치

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.

(2)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소

※ 거시경제연구원은 중국 국가경제계획위 산하의 정책자문연구소로서, 산업정책, 농촌, 서비스, 공업, 첨단기술연구소 등 많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음.

□ 12차 5개년 계획의 목표

○ 12차 5개년 계획의 목표는 ① 지도성 목표, ② 제약성 목표로 구분할 수 있음.

- 지도성 목표는 GDP성장목표, 서비스비중 목표, 첨단기술산업 목표 등과 같이 총량과 구조적 목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.

· 예컨대, 7대 전략형 신흥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%에서 2015년 15%로 늘리는 것은 지도성 목표라 할 수 있음.

- 제약성 목표는 에너지 절감, 환경기술발전 등과 같이 산업발전의 방향에 제약을 가해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말함.

○ 과거의 경제계획과 12차 5개년 계획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.

- 과거부터 9차 5개년 계획까지 : 구조조정 지원이 핵심임.

- 11차 5개년 계획 : 구조조정 지원으로부터 성능지원으로 전환함.

- 12차 5개년 계획 : 경제 및 산업의 발전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임.

○ 12차 5개년 계획에서 산업과 관련된 경제전략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.

○ 첫째,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에서 소비를 증가시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것임.

- 중국은 그간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소비의 비중이 낮아져 왔음.

- 그간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은 중화학발전, 수출과 가공산업 발전, 환경과 투자의 기회비용 상승, 순수출증가로 인한 무역마찰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왔음.

○ 둘째, 1차-2차-3차 산업간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임.

- 12차 5내년 계획 기간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43%에서 47%로 4%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, 제조업의 비중은 다소 하락, 1차산업의 비중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
- 그동안에는 2차 산업, 그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환경파괴문제가 심화되어 왔음.

○ 셋째, 노동력 투입, 환경파괴형 성장패턴으로부터 노동의 질적 제고와 환경관리형 성장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임.

□ 전략형 신흥산업

○ 전략형 신흥산업의 비중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은 무의미하고, 기술창조를 통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여 세계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- 즉, 중국의 가공무역패턴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전략형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것임.

- 예컨대, 태양에너지산업의 경우 중국은 그간 외국으로부터 설비도 입후 조립하여 생산한 결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등의 문제점을 초래했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는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것임.
-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의 목표는 ① 기술창조, ② 에너지절감, ③ 국민만족임.

□ 서비스산업

-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중점 목표중의 하나임.
- 금융, 현대물류, 첨단기술서비스, 상업서비스 등 “생산성 서비스산업”의 육성은 제조업과 관련되고 따라서 제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.
- 중국 제조업은 그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, 향후에는 차별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,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함.
- 즉, 생산성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에 영향을 미치고, 신농업의 경우도 1차-2차-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발전이 필요한 것임.
- “소비형 서비스산업”은 향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

-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견차이가 상존함.

○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와 재정문제가 중요하므로 투자를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강조함.

- 그러나, 지방정부들의 동시다발적 투자확대는 환경에너지 문제, 과당경쟁 등을 야기하는 등 전국적 차원에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함.

○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낙후된 설비를 토대시키고, 기술과 환경기준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도태한 설비만큼 업그레이드된 설비투자를 승인한다는 것임.

- “큰 것으로 작은 것을 대체하고, 진입으로 퇴출을 대체한다”는 것은 기술과 환경표준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□ 내수 주도형 성장전략

○ 중국이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소비비중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,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비중을 늘린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.

○ 내수 주도형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소득 분배 개혁, 소득세 표준을 개혁하여 독점기업의 소득을 재분배, 농촌양로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등임.

□ 한중 산업간 기술격차와 분업전망

○ 현재 국가별 경쟁력은 미국이 표준을 주도하고 있고, 한국과 일본은 부품소재를 주도하고 있으며,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공무역패턴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특징지워짐.

○ 한중간 기술격차는 다음과 같이 평가됨.

- 노동집약적 산업분야는 한중간 기술격차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

고, 노동비용면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됨.

- 철강 등 자본집약형 산업 분야에서는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우위에 있는 한국의 기술수준이 앞서 있음.
 - 기술집약형 산업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기술수준이 앞서 있음.
- 다른 한편, 한국과 중국내 다국적 기업간에는 기술격차가 거의 없으나, 한국과 중국내 토착기업 간에는 기술격차가 상존함.
- 중국은 지역별로 발전의 차이가 크고, 13억 인구를 배경으로 경쟁력이 피라미드형으로 복잡하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의 기술수준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함.
- 향후 한중간에는 노동집약형, 자본집약형 산업보다는 기술집약형 산업분야에서 분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.
- 기술집약형 산업의 경우 중국의 장기목표가 기술발전인 만큼 한중간 기술격차가 축소되고, 국제분업에서 세분화되어 있어 한국이든 중국이든 모든 분야를 자급자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
(3) 중국자동차공업협회

- 중국은 2010년 1,800만대 이상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져 세계 최대 생산국 및 소비국임.
- 이에 따라 시장개척을 위해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.
- 한국은 중국 자동차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영향력

은 크지 못한 상황임.

-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로 인해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자동차가 중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.
- 2010년 한국 자동차업체의 중국 승용차시장 점유율은 7.5%이고, 상용차부문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.
- 중국 자동차산업은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, 중국도 취약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 - 중국 독자계 기업의 능력향상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합자기업의 중국내 개발을 독려
 - 현재 값싼 노동비용에 의존한 저부가가치부문에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고부가가치화로 구조고도화를 도모
- 중국은 향후 기술 및 연구개발, 신에너지자동차, 친환경대책, 여타 표준 및 기준 등에서 한중협력의 강화를 요망하고 있음.
 - 환경문제나 신에너지자동차는 한중 모두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서 협력의 가능성 존재
 - 중국은 취약한 기술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기업들이 중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
 - 공동연구개발 등 기술협력에 있어 완성차뿐만 아니라 동반진출 부품업체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, 특히 IT분야(ECU 등)에 관심이 많음.

- 중국이 신에너지자동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 - 중국은 기술수준이 높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자동차 육성은 중국기업에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견해
 - 신에너지자동차 부문에서도 중국은 기반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
 - 신에너지자동차에 있어 중국이 시범사업 실시, 시장형성 등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중국적으로 기술을 획득할 수 있을 지는 의문

(4) 중국 석유화학공업협회

- 지난 5년간 중국 석유화학 산업의 성과 : 가장 고속성장 기간
 - 매출액 21.5% 증가, 이윤율 13.5% 증가, 자산총액 24% 증가, 투자 23.8% 증가, 수출 20% 증가 등
- 과거 5년간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특징 혹은 2010년 위상
 - 세계 1위 생산국, 자원보유국
 - 구조조정 추진 : 에너지소비 절감, 정밀화학 비중 증대
 - 과학기술창조 : 석유개발기술, 새로운 촉매기술, 자동화 제어와 정보기술 발전
 - 에너지절감 기술이 성과를 거둬 : 환경오염 축소, 11차 5개년 계획 목표치 달성

- 석유화학단지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돌파 : 60개 단지 신설
- 대외개방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
-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문제점
 - 공급부족과 구조적 과잉문제 상존
 - 과학기술수준이 낮고, 저부가가치형 생산구조여서 이윤율이 낮음
 - 석유, 천연가스, 에틸알콜, 천연플라스틱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음.
 - 기업이 분산되고 평균생산능력 규모가 작아 산업집중도가 낮음.
- 12차 5개년 계획기간의 중점 목표
 - 목표 : 석유화학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, 첨단제품 발전, 생물화학 발전, 에너지 절감
 - 목적 : 대국에서 강한 나라로 변화는 것임.
- 2011년도 상반기 실적
 -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34% 증가, 고용 7.6% 증가, 화학비료 8.3% 증가, 에틸렌 생산량 17.2% 증가, 합성수지 9.8% 증가, 투자 19.8% 증가, 무역 32.7% 증가, 수출 32.9% 증가
- 한중간 무역 규모
 - 2010년에 중국의 전체 수입은 3,200억달러이고, 한국은 수입국 중 2위를 차지하나, 전체수입에서 대한 수입의 비중은 10% 미만임.

○ 중국의 대한 수출은 2010년에 67억달러이고, 대한 수출은 전체수출의 5%이며, 한국은 수출대상국중 6위를 차지함.

□ 한중 석유화학업계의 교류

○ 중한 석유화학 회의가 1999년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.

- 목적은 정보, 인력의 교류와 민간 협회의 교류임.

- 초기 3-4년간은 정부측도 참여했으나, 이후 정부측은 정기교류에서 빠졌음.

- 2007년 이전에는 매년 개최하였으나, 이후에는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음.

□ 중국의 반덤핑

○ 중국은 현재 한국산 PTA에 대해 반덤핑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, 향후 PE, PP 등 타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품목 지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.

- 중국 석유화학협회의 논거는 한국은 생산량 과잉이고 내수보다 생산이 많다는 점, 그리고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이 싸다는 점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음.

□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장기 수급 전망

○ 중국은 석유화학 신증설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, 수요가 더 빠르게 상승하여 향후 자급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

로 전망됨.

- 예컨대, 향후 5년후에도 중국석유화학산업은 과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그러나,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향후 저가 제품이 도태되고, 고부가가치 제품구조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.
- 한국에 건의 사항 :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저가제품 위주의 대중국 수출확대에 치중하여 중국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보다는 일본처럼 차별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중국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인식함.

(5) 중국반도체산업협회

- 통신기기, 컴퓨터, 가전기기 등의 생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중국 반도체수요는 크게 증가
 - 2006년 이후 연평균 17~20%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, 향후 2015년까지도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- 중국의 선두업체들은 IC설계와 파운드리에 주력하고 있으며, 첨단, 원천기술보다 시장과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.
- 중국 반도체산업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며, 최근 무역수지 적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음.
 - 2010년 중국 반도체산업의 적자는 1,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.

-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주력 수출대상국이며,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거두고 있음.
 - 대중 수출은 2005년 71억 달러에서 2010년 172억으로 크게 증가
 - 중국시장에서 DRAM 반도체의 경우 삼성과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62%에 달하고 있음.
 - 중국에 진출한 국내업체들은 주로 전후공정을 중심으로 생산을 추진하고 있음.

- 반도체산업에 있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
 - 향후 투자 및 기술교류 등 분야, 특히 에너지절감이나 환경보호측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